제주사회복지신문

제66호

2013년 4월 2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김수완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지난해 제주지역 푸드뱅크 · 마켓 기부식품 접수액

사상 첫 10억원 돌파

전년 대비 29.6% 증가
저소득 가정에 무료 제공

지난해 제주지역 푸드뱅크 · 푸드마켓의 기부식품(불품) 접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완화하고 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푸드뱅크(4개소)와 푸드마켓(2개소)의 기부식품 접수액은 2011년보다 29.6% 증가한 10억80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푸드뱅크 시범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도입으로 체계적인 접수와 배분 집계가 이뤄지기 시작한 2003년과 비교하면 접수액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3년 2억2000여만원이던 접수액은 2004년부터 줄어들어 2006년까지 3년간 1억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 3억원으로 반등했고, 2008년에는 2억8000여만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2009년 4억2800여만원, 2010년 6억2900여만원, 2011년 8억3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기부식품 접수액이 증가한 것은 기부와 나눔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식품 관련 업체 등 기업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 관공서,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진 기부식품은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4691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7개소에 총 15억86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지원했다.

전국(중앙)푸드뱅크에서는 지난해 제주지역에 5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나눔 운동을 통해 다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식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식품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수눌음 운동본부' 출범

사회복지협의회 · JIBS 등 참여

서로 돕고, 믿고, 나누는 제주 고유의 수눌음 운동을 통해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조성을 위한 '수눌음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눌음 운동본부는 3월 2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3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눌음 운동본부에는 JIBS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소득과 재능 기부, 자원봉사 붐 조성, 의식주 나누기 운동,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결연식, 장애인 취업 알선 운동, 다문화가정 지원, 농촌일손 돕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JIBS는 이들 단체에서 추진하는 나눔운동 현장을 찾아 취재한 후 '여기는 수눌음운동본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주 1회 방송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수눌음 운동본부장으로 선출된 김순택 전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장은 "제주사회에 만연돼 있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도내 주요 단체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수눌음 운동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 2 · 3면
  제주 영유아무상교육 신청 급증
  제주사회복지 1호 시설 탐방(2)
- 사회복지소식 ..... 4 · 5면
  제주사회복지시설 7곳 A등급
  한학급 한생명살리기 캠페인
- 오피니언 6면
  칼럼 · 기고
- 특집 7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심포지엄
- 기획 8면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겼나

4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5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t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 내용	일시·장소	문 의
제주시정신건강센터	201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기념식 및 정신건강 강좌, 지역사회조사결과보고 등	10일 14:00~16:00 제주대병원 2층 대강당	728-4074~5
제주애덕의집	가족봉사단 오리엔테이션	가족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6일 10:00 애덕의집	724-8102~2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설명회	사업의 이해증진을 위한 소개	6일 10:00 애덕의집	724-8102~2
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하계 실습생 모집	복지관 주요 사업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 등	5월 10일까지 방문 접수(모집인원 5명)	753-2740
사회복지법인 공생	제주공생 바자회	먹거리 장터, 물품판매 등	12~13일 10:00~21:00 유나인 제주대점	723-2256~7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특강	부모-자녀 마음 잇기	17일 10:00~12:00 센터 강당	759-995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 실무교육	근로기준법 이해, 근로계약 체결 등	10일 14:00~18:00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과 전략적 자원개발교육	자원개발의 필요성, 조직의 마케팅 전략 등	16일 14:00~17:00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장애인활동지원제 '수요자 중심' 개편

복지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연구 실시

연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외출 등을 돕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운영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심신상태 위주의 활동지원등급 산정과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 간병·요양 위주의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우선 제도 운영 실태와 수요자 욕구 조사 등 정책연구를 11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기초급여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계산식에서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된 부분'의 5%에 해당하는 기초급여와, 장애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2만~17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은 국민연금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영유아 무상보육 신청 급증

올해 3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ildcare.go.kr)'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3만143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2만4837명, 가정 양육수당 신청자는 659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보육료 신청은 4244명(20.6%), 양육수당 신청은 4786명(264%)이 각각 증가했다.

3월 현재 도내 만 0~5세 영유아는 3만5630명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만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해당 가정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촉…본격 활동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3월 13일 사회복지위원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사회복지위원은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명을 비롯해 도의회 추천 3명, 행정시 복지협의체 위원장 2명,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장 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교육청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맞춤형 전달체계 운영방안과 재활병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사회복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에 고현수 제주 상임대표 선출

고현수(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얼굴사진)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월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고현수 상임대표를 중앙법인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고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문위원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간이다.

고 공동대표는 "각 지역 포럼이 연대해 인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나가자"고 밝혔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오는 11월 제주지역에 설치, 운영된다.

이 센터는 제주시 한라병원에 설치된 여성·아동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내에 설치된다.

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무휴로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및 수사 지원을 한다.

우근민 제주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긴급간담회…의견 청취

우근민 제주지사는 3월 21일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사진)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80%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공석이 발생해도 충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대상자들이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장이 수시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과중시 다른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또 "제주도의 경우 사회복지직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8위"라며 "이를 1인당 3000명 미만이 되도록 사회복지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가정 긴급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가구를 발굴,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32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이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푸드마켓 "식품으로 사랑을 전해세요"

3월 식품 기탁자

▲김경생씨=유기농 무 41개 ▲김정이씨=채소류 15kg ▲안신희씨=봄동배추 232포기 ▲장인해씨=유기농 무 1,200kg ▲금강축산유통=육류 297kg ▲김치원=김치 40kg ▲빵띠아모=빵 21봉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384모 ▲신농영농조합=장아찌 175kg,양배추50망 ▲신성상사=국불용멸치(1.5kg) 30상자 ▲이든이네=멸치 3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33kg ▲제주보리촌=보리빵 143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감귤주스 60개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493봉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730,000	37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840,000	840,000
복지사업후원	1,165,000	703,560
푸드마켓후원	3,020,000	5,515,32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 사회복지 1을 시설' 탐방 ▶ (2)제주시희망원 ·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노숙인시설 1호 '제주시희망원'

거리 떠도는 노숙인의 유일한 안식처

"당시만 해도 제주시 화북동에 달랑 조립식 건물 하나 짓고 창살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 부랑인과 노숙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돼 냄새가 진동하는 등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제주시희망원 박정해 원장은 1970년대 말, 희망원 초창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제주시희망원은 제주도내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려자들을 보호하고 상담, 질병, 치료, 자활교육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노숙인 보호시설로 '제주시립희망원'이란 이름으로 1979년 2월 17일 설립됐다. 제주지역 최초의 노숙인 시설이다. 희망원의 전신은 1972년 5월 29일 문을 연 '사랑의 집'이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던 시기이서 거리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데 머물렀다. 알코올 중독자들 비롯해 집 나온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술을 마시다 뱃시간을 놓친 선원, 배낭여행을 왔다가 돈이 떨어진 대학생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곳을 거쳤다.

입소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겨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이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1987년 1월 공생복지재단이 제주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제주시 월평동에 신축 건물을 짓고 이전했고, 1990년에는 부대시설과 창고를 증축했다.

2004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부랑인과 노숙인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인 '제주정신요양원'을 따로 분리해 각각에 필요한 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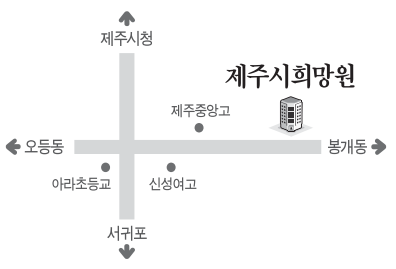
집 없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해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랑인과 노숙인이란 용어는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숙인'으로 통일됐다.

단일용어로 '홈리스(h0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현재 희망원 입소자는 83명(정원 105명)으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이다. 1년에 이 곳을 거쳐가는 사람만 350~400명에 이른다. 공원이나 화장실, 다리 밑 등지에서 발견돼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고, 남녀 비율은 8대 2 정도다. 직원은 원장을 포함해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매일같이 '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탓에 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알코올치료와 재활치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721-0712~3



1979년 2월 조립식 건물 짓고 노숙인 집단 수용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로 재활치료 통해 사회복귀

장애인단체 1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회적 차별 · 편견 극복해 온 농아인의 구심체

1981년 1월 27일 옛 제주맹아학교(현 제주영지학교)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들이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 온 이들에게 이날은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 농아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기치로 내건 '제주도농아복지회'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1년여간 농아복지회 창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오원국씨(당시 45세)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제주도농아복지회는 한국농아복지회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농아인 단체로 제주지역 최초의 장애인단체이자 사회단체 1호이다.

농아복지회는 제주시 무근성 입구의 허름한 건물 2층에 둥지를 틀었다. 10평(33㎡)도 채 안 되는 공간을 빌려 사용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만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난방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모자란 운영비는 오 회장이 사비를 털어 해결했다.

농아복지회는 창립 다음달인 1981년 2월 '한국농아복지회 제주지부'로 명칭을 바꾸고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1997년 2월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이하 제주도농아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주도농아인협회 고문을 지낸 양달성씨는 농아복지회 창립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농아인에 대해 관심 밖이었어요. 거리를 두고 보는 경향이 다분했죠. 그래서 창립 첫 해 농아복지회의 기본 방향이 '우리도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더불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농아복지회는 창립 초기 농아인들이 껌을 팔거나 구걸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농아인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조치였다.

대신에 목공이나 도장 등 기술을 배우게 하고 사회적 차별에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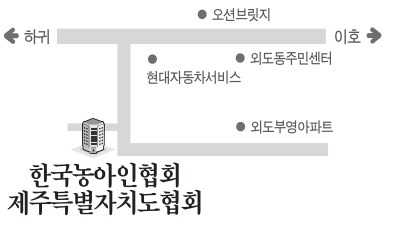
1996년 3월에는 제주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가, 1997년 8월에는 서귀포시지부가 각각 설립됐다.

농아인들의 구심체인 제주도농아인협회는 1997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했다.

제주시 외도1동 제주도농아복지관 3층에 자리잡은 제주도농아인협회는 농아인 직업재활센터와 수화교실, 농아인자녀교육, 전도수화경연대회, 제주농아체육회, 국제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서귀포시지부 초대 회장을 지낸 박춘근씨(46)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도농아인협회 부현철 사무국장은 "2015년에는 그간 농아인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35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743-3920



1981년 1월 창립…"당시 농아인은 관심 밖 대상"
"우리도 당당한 사회일원"…농아복지 역사 개척

제주 사회복지시설 7곳 'A등급'

아라 · 서귀포 · 서부 ·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 · 평화양로원 · 애서원 등…복지부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7곳이 A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4개 유형의 전국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4곳을 비롯해 제주양로원, 평화양로원 등 노인양로시설 2곳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서원 1곳 등 모두 7곳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제주양로원은 5회 연속, 평화양로원은 4회 연속,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3회 연속,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애서원은 2회 연속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9곳, 노인복지관 6곳, 노인양로시설 2곳, 한부모가족시설 4곳이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유형별로 나눠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평가 결과는 2009년에 이어 2012년 실시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우수등급(A · B등급) 비율이 91%로 가장 높았고, 노인양로시설(81%)이 최하위였다.

보건복지부는 우수시설에 대해 시설평가 동기부여와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위등급(D · F등급)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등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식/마/당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아카데미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봉금)는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3월에 우크렐레 교실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천연비누 만들기, 도예체험,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부모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장복-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3월 8일 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황의식)와 장애 · 경계선급 아동이 통합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장애감수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장애아 통합환경 기반 마련과 종사자의 장애감수성 증진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과정 개설 및 개별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추자도 탐방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2월 23일 위탁아동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자도 올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최영 장군 사당을 비롯해 봉글레산, 신대전망대, 몽돌 해안 등을 잇는 올레길을 걷고 추자도 10경을 둘러보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탐방은 올해 3번째로 JIBS방송국과 씨월드고속훼리가 후원하고 있다.

제주애덕의집, 장애인 평생교육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3월부터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평생교육은 거주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들이 개인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2월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아라복지관, 초등과학교실 개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3월부터 첫째 · 셋째주 토요일에 저소득 및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참가 인원은 20명이다.

제주대학교 초등과학영재교실에 입학한 학생과 그 학부모 모임인 '착한 소도리'에서 학습지와 운영을 도와준다.

은성복지관, 오케스트라 운영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제주대학교 오렌지스쿨과 연합해 도내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오케스타'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려심과 협동심, 재능을 키우고 있다.

복지관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아동 · 청소년 야간보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흥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아동 · 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인 '꿈키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꿈 키움터'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초학습 지도, 문화활동, 집단상담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가족지원사업,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복, 학용품, 의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행복기자단 사업보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3월 27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주행복기자단 사업보고 및 우수시민기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제주행복기자단은 습작, 기고, 기사 등 지난 1년간 작성한 글을 엮어 기사 · 기고 모음집을 펴냈다. 제주행복기자단은 그동안 월 1회 기사 취재와 지역문화축제 취재 등을 통해 56건의 글을 썼고, 이 중 38건이 언론매체에 게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언론멘토 3명과 우수 기자단원 1명 등 4명이 상을 받았다.

제주-대구자원봉사센터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3월 21일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연욱)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방향 등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 전개

월드비전 제주지부, 한라초교와 결연식 가져
한학급당 매달 3만원 모아 아프리카 아동 후원

▲한라초등학교가 3월 22일 월드비전 제주지부와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결연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어린이들이 용돈을 아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빈곤 아동을 돕는 캠페인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MBC, 제민일보와 함께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3월 22일 한라초등학교(교장 정희만)에서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결연식을 가졌다.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의 빈곤 어린이 한 명과 우리나라 학급 한 반이 자매결연을 맺는 캠페인이다.

한 학급에서 매달 3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빈곤지역 아이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후원금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함께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한라초교 69개 전 학급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또래 아동 69명을 후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 아이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만 교장은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에 올해로 3년째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발적 참여와 학부모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가정에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창수)는 3월 9일 서귀포청년회의소(회장 홍종우)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3 지역사랑 리퀘스트'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들 기관은 '나눔으로 희망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뇌병변 1급 현모군(15) 가정에 의료비 4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청년회의소는 장애인 가정 의료비 지원에 이어 4월에는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맞춤식 의료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축제 개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3월 16일 제주시 한림체육관에서 제5회 서부지역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한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는 이주민 여성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多)정한 우리들'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한 데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다.

식전행사로 이주민여성들이 각자 고국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데 이어 각 국가별 전통놀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 이어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네팔 전통춤 공연, 다문화여성과 라이온스 회원 합동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경품추첨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을 차지했다.

장애인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렬)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4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함께사는 세상의 즐거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사업은 수중재활, 요가, 지역사회문화체험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중재활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미래수용장에서, 요가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는 지역사회문화체험이 진행된다.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의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에 부식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제주시 이도2동, 오라동, 연동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 아동 720명에게 월 2회 부식을 지원한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부식 물품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해당 가정에 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시설 소개하기

'디딤돌 그룹홈'과 일배움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플로베'에서 자신들의 시설을 소개하는 글을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원문을 최대한 살려 지면에 싣습니다. 〈편집자 주〉

"사랑과 희망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곳"

디딤돌 그룹홈

디딤돌 그룹홈은 부모의 이혼, 가출, 가정폭력, 방임, 유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 해체 위기에 아동·청소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안식처와 성장기반을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자립생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보호를 유지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아동친화적 복지 대안가정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9일 사랑의 집 공동생활가정으로 개소해 아동복지생활 시설을 시작으로 현재 디딤돌 그룹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얼마 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알맞게 벽화 그리기, 텐트 및 블라디넷 다루기, 미술지도, 동화책 읽어주기, 오름 등반, 매드민턴 치기,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개월 난 아이에서부터 20살 어대생까지 서로 의지하며, 보듬어주고, 자기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로 오세요"

플로베

'힐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치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요즘 여기에 여러분의 힐링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꽃, 커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커피가게 '플로베'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꽃밭에 온 듯한 느낌의 파스텔톤의 실내디자인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물씬 나는 예쁜 카페입니다. 각 계절에 맞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들이 있어 사시사철 향기를 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플로베의 커피와 음료는 맛과 더불어 건강을 생각한 힐링음료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따뜻한 봄의 날씨가 완연해 지면 야외테라스에 나와 노천카페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빛이 기웃거리기 시작한 요즘 코끝에 커피향이 그리워지지 않으신가요?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으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도 행복해지는 플로베에 오셔서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다양한 힐링식물들을 만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로베로 놀러오세요~

칼럼

복지업무 '깔때기 현상' 해소 시급하다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복지직 말단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할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새로운 지침이 쏟아지는 연초에는 더 바쁘다. 공휴일에도 쉬는 날이 없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다반사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이다.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급자 관리를 비롯해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정책에 따른 수급대상자 관리 업무가 읍·면·동에서 이뤄지고 있다. 복지수급자들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복지업무는 120여 가지가 넘는다.

그렇다고 복지수요 증가에 맞게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제주지역 복지직렬 공무원은 현재 165명이다. 2009년 136명보다 29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도민 인구대비 1인당 3,538명을 맡고 있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에 해당한다.

특히 복지직 공무원 1명만이 배치된 주민센터도 있다.

물론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 복지직 공무원만 전담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나 무기계약직, 기능직, 인턴 등도 투입돼 일손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기간 일을 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복지수급자 사생활 문제 등이 있는 업무는 쉽게 맡길 수도 없다.

실제 모 읍사무소인 경우 복지직과 행정직 등 4명이 3,200가구에 복지수급자 4,783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늘어난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예정자 502명에 확인 조사,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다. 아파트 등 가정마다 일일이 안내장을 보내면서 신청접수를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 상담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찾아 주기적으로 상담까지 하고 있다. 때로는 고위험군 내방자까지 맞이해야 한다. 중증 알코올중독자, 교정시설 출소자, 정신질환자, 폭력성 있는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런데 운영 시설마저 낡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읍·면·동의 복지업무에 대한 해소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각종 업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관련 업무는 읍·면·동으로 집중하고 있다. 마치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생긴 '깔때기' 같은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직 공무원 확충시급

이는 복지전달체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너무 부족해 복지혜택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면서 되레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으로 집중하는 복지시책에 대한 업무조정과 함께 복지직 공무원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깔때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음지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으며 묵묵히 일하는 말단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이 뒷받침한다

정 순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협력담당

누가 21세기는 자원봉사가 자원인 시대이며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위대한 힘은 바로 자원봉사 라고 했다.

우리도인 경우 200여년전 김만덕 의녀의 나눔과 베풂의 자원봉사정신은 제주 자원봉사자들의 아이콘으로 구축되어 자원봉사 활동의 촉매역할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니라고 본다.

우리도 자원봉사자는 81천명으로 이중 55%가 매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가구 청소, 빨래봉사를 비롯하여 주거환경 분야, 환경보호, 문화행사, 행정공익사업을 비롯하여 재해재난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과 단체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재능과 기부, 나눔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참여가 되고 있다.

이렇듯 1365등(www.1365.go.kr)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현장에 오가는 길 접촉사고, 다리 삐거나, 뜨거운 물 등에 화상 등 다양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원봉사포털 1365에 가입등록과 상해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어야한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자는 사고발생시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고 치료 후 진료비 및 약국영수증, 진단서, 사고경위서, 신분증 등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고사실 통보에 따른 피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 등 보험금 수령 할 때까지 피 보험자를 대행하여 업무처리를 해준다.

수요처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임을 확인한 후 응급치료 조치토록 하고 사고사실을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우리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51천명 가입해 있다. 활동하면서 사고 없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여 봉사자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어멍, 아방 혼디모영 고치 놀게마씸!"

김 현 주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토요일 아이들의 보호·교육과 관련하여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물론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개소와 함께 토요일 운영을 계속 해왔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민의 결과, 2011년부터 토요일 오전에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연합동아리 사업을, 그리고 2013년부터 토요일 오후에는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와 함께 중등부들만의 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3년 복권기금 토요보호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초등부 12명의 아이들과 보호자 5명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가족풍물단과 중등부 16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영 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은 한 달에 3번, 가족풍물단은 놀이패 한라산 사무실에서, 수영 교실은 사라수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아이와의 시간을 늘리면서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분들 내면에 존재하는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꽹과리, 장구, 북, 징을 치며 보호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은 신명나는 우리 장단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학교나 센터 프로그램에서 북, 장구 등의 악기를 접해 본 아이들에 비해 악기를 다루는 것이 서투른 보호자들을 위해 교습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할 정도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미숙하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자신들이 더 잘한다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호자의 실수에 신나하기도 하며 꽤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이나 센터 행사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꾸준한 연습해 나갈 것이다. 또 다른 성취감으로 성장할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될 테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즐겁게 장구와 북을 치는 동안 중등부 아이들은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있다.

사춘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할까 걱정을 하였지만 처음에 다소 어색해 하던 분위기가 두세 번 반복되면서 편안해지는 분위기다.

첫날 킥판을 잡고서야 물에 뜨는 수준으로 물장구를 치며 연습을 하던 아이들이 둘째 날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성인용 풀에서 자유형을 거뜬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올 여름에는 물개만큼이나 익숙한 몸놀림으로 다양한 형태의 헤엄을 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의 2013년 토요보호 사업 진행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심포지엄

"장애인 · 비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공동 주최로 3월 19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현정화 제주도의원이 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성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81%가 지적장애인…연령도 낮아
현정화 의원 "성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필요"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제주도내 여성장애인 10명 중 8명꼴로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지적장애인과 20대 이하 청소년 및 아동들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특히 지적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 공동 주최로 3월 19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는 열린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현정화 제주도의원은 발제를 통해 제주지역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성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전국 장애인 성폭력(656건)의 약 5%인 3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81.8%인 27명이 지적장애인이었다.

도내 지적 여성장애인은 1175명으로 전체 여성장애인(1만4789명)의 8%다.

현 의원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낮으며, 사람을 잘 따르고 거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판단 능력과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능력이 약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간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연령은 13~18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9세 21%, 30~60세 27%, 7~12세 9% 순이었다.

현 의원은 한 지적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강간이 계속돼도 알릴 방법을 몰라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제주에서도 장애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중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성교육 예산이 지난해 20개교 2400만원에서 올해는 23개교 138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13~18세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역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더욱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는 만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저항 수준이나 대처 행동이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피해자의 대처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은 장애인에게 더 큰 부담감과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에게도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등 보호자와 교사,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선경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2013년 6월부터 적용되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은 준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항거불능 외에 '항거 곤란'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저항의 곤란이 '현저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애인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했다"며 "다만 법원이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항거 곤란'을 개정 전과 같이 '항거의 현저한 곤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정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법률조력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법률조력인 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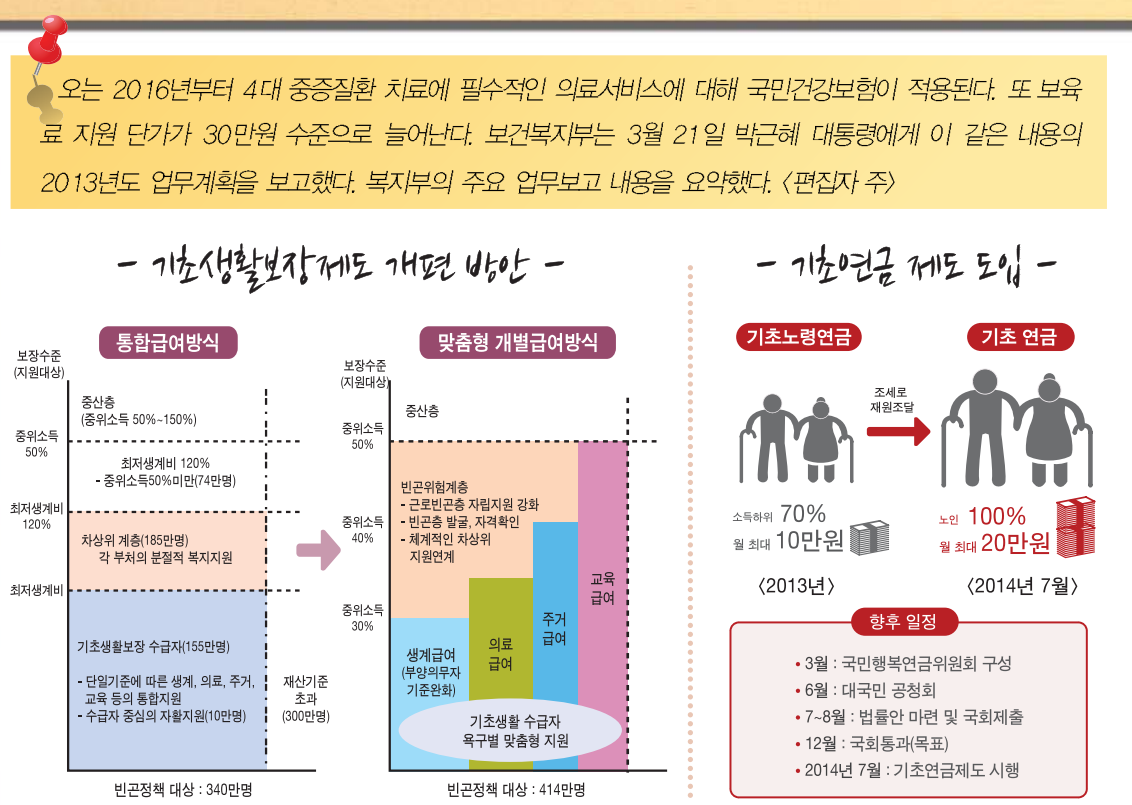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인 통합 돌봄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이어 "쉼터 퇴소 후 생활 시설 지원,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사건수사 및 재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더 이상 성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겼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전면 개편…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오는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3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차상위계층 등 74만명 추가 혜택

보육료 지원액 월 20만→30만원…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동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해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현재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동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하고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안은 7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 깔대기' 해소가 시급하다"며 "사회복지 공무원 등 복지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 교육 등 7가지 급여와 함께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 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한번 기초수급 자격을 얻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 이런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기초수급 급여체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약간 넘는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오는 가구 소득 · 2011년 4인 가구 기준 397만원)의 30%(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인 가구까지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35%(139만원)까지는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40%(159만원)까지는 주거 · 교육급여, 50%(199만원)까지는 교육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던 7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기존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기초수급 급여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입소 내실화 대책'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범 도입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